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8> 마조 스님의 '할!' 에

부처님 공부를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극락왕생하기 위하여 염불을 하고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하여 경전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을 깨쳐 바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참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길은 달라도 마지막에는 모두 부처님 세상에 가닿게 되겠지만, <선가귀감> 내용은 그 가운데서도 간화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 길을 일러 놓은 것이다. <선가귀감> 78장에서 말한다.

大抵學者 先須詳辨宗旨 昔馬祖一喝也 百丈耳聾 黃壁吐舌 這一喝 便是拈花消息 亦是達摩初來底面目 吁此臨濟宗之淵源

대저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각 종파에서 추구하는 길을 잘 알아야 한다. 옛날 마조(馬祖 709-788) 스님의 '할!' 한 마디에 백장(百丈 720-814) 스님은 귀가 먹었고 황벽(?-850) 스님은 혀를 내밀었다. 이 '할!' 이 바로 부처님이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꽃을 들어 보인 소식이며 또한 달마 스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본래면목(本來面目)이다. 이 것이 임제종의 근원이 되었다.

마조 스님은 유명한 당나라 선승(禪僧)으로서 사천성 성도부 사람이다. 일찍이 남악(南嶽) 회양(懷讓 677-744) 선사 밑에서 열심히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회양 스님이 어느 날 다가와서 물었다. "자네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좌선은 해서 무엇 하려는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회양 선사는 그 이튿날 벽돌을 깔기 시작하였

다. 마조가 와서 물기를 "스님, 벽돌을 깔아 무엇에 쓰시려고 합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벽돌을 깔아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네도 알아야 한다고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레가 움직이지 않을 때 채찍으로 수레를 때려야 하겠는가? 아니면 소를 때려서 가게 해야 되겠는가? 선(禪)이란 없거나 높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부처는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취하고 버리는 분별이 없어 집착이 없는 것이야말로 선(禪)이다." 이 말에 크게 깨친 마조 스님은 회

'할' 한마디에 백장은 귀 먹고 황벽은 혀 내밀다 분별심 경계하라는 큰스님들의 자비심의 표현

양의 법을 있고 법문을 할 때마다 '평상시 쓰는 마음이 도이다(平常心是道)'와 '마음 그 자체가 부처다(即心是佛)'라는 말로써 크게 선포를 일으켰다. 백장 회양 서당지장 남전보원 대매법상 등 139인이나 되는 많은 제자들을 두었다.

마조 스님의 법을 이은 백장 스님은 복건성 삼후현 사람이다. 마조 스님을 모시고 길을 가고 있는데 물오리 떼가 울면서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조 스님이 물었다. "저게 무슨 소리냐?" "물오리 우는 소리입니다." "함참 있다가 다시 물기를 '아까 그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날아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마조 스님이 백장의 코를 잡고 비틀었다. 백장은 아픔을 참지 못하고 백장은 '앗!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마조 스님이 "그래도 날아갔다고 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 깨친 바가 있었고, 그 다음 인연에는 마조 스님의 '할!' 소리에 크게 깨쳤다고 한다. 뒷날 홍주 남창부 봉신현에 있는 백장산(百丈山)에 들어가 법을 펴기 시작하였다. 백장 스님은 울종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해 왔던 선원의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선종의 총림 제도와 규율을 엄격히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백장청규(百丈淸規)>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一日不食]"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 청규는 뒷날 천하 총림에서 받들어 행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연로한 나이임에도 날마다 일하는 백장 스님의 모습이 하도 인스러워 하루는 일을 못하도록 제자들이 연장을 감추었더니, 백장은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밥을 굶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뛰어난 그의 제자로서 황벽(黃檗)과 위산(威山)이 있었다.

백장 스님의 제자인 황벽 스님은 복건성 복주주 삼현 사람이다. 어렸을 때

문(羸行沙門)이란 법호를 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배후가 간하기를 "폐하에게 황벽 선사(黃檗禪師)가 세 번 때려준 것은 폐하의 삼제(三際) 곧 과거 현재 미래의 윤회를 끊어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뜻이었습니까?"라고 하자 '단제(斷際) 선사'라는 호를 내리게 되었다. 그의 저서로는 배후가 아픔을 한데 모은 <황벽산 단제선사 전심법요(黃檗山斷際禪師傳心法要)>가 있다. 임제종 창시자 임제의현(?-867)이 그의 법제자이다.

마조의 '할!' 한 마디에 백장은 귀가 먹었고 황벽은 혀를 내밀었다. 이 '할!' 이 바로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자 가섭이 빙그레 웃어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염화미소(拈花微笑) 소식이며 또한 달마 스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본래면목이다. 그러므로 서산 스님은 말한다.

識法者權 和聲便打.
법을 아는 사람들은 경계하느니 이는 소리 활라치면 때려버린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사비하고 분별하는 중생들의 마음을 꺼려한다. 그 다음 때문에 중생들이 육도윤회를 하며 밤중에 길을 가는 사람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생들이 분별하는 마음을 날라치면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죽여 버린다. 그 모습이 '할!' 로 나타나기도 하고 주장처럼 때려주기도 하는 것이다. 큰스님들의 자비심이다. 서산 스님은 계속으로 말한다.

杖子一技無節目 懸空分付夜行人.
가디란 주장자 맞힌 마디 없는데도 밭길 가는 사람에게 애뜻하게 내어주네.

서산 스님은 이를 다시 풀이하여 '옛날 마조 스님이 외치는 '할!' 한 마디에 백장 스님은 '대기(大機)'를 얻었고 황벽 스님은 '대용(大用)'을 얻었다. '대기'란 오롯하게 어떤 근거이든 두루 맞힌다는 뜻이고, '대용'이란 헛소리를 바로 끊어버린다는 뜻이다. 그 사연들이 전등록에 실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원소 스님(송승사 인월암)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0>

윤회

십이처의 세계에 속속들이 적용될 것 같은 업인과보의 법칙으로도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현실에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 별다른 노력 없이도 편히 살아가며, 어떤 이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 선인(善因)은 발견되지 않는데 선과(善果)만 나타나는 경우와, 선인은 있는데 선과가 나타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불교의 속세·현세·내세의 삼세의 개념이 나온다. 즉 전자는 선인이 속

의 인과를 관찰하면 누구나 그 필요성을 추단(推斷)할 수 있다고 본다. 부처님은 이러한 인과업보의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구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하며, 깨달음을 얻으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수행해야 한다고 누누이 설했다. 삼세윤회설을 드라마틱하게 펼친 것이 육도(六道) 윤회설이다. 중생이 업인에 따라 윤회하는 길을 여섯으로 나눈 것이 육도·아수라도·인간도는 욕계(欲界)에 속하며, 천상도는 욕계의 6천과 색계(色界)

불교는 현세의 업인 관찰 통한 내세 과보 예측 '신경증적인 마음에 대한 불교적 모델'로 해석

세에 있었는데 현세에 비로소 과보가 나타났고, 후자는 현세에 업인을 쌓았으므로 내세에 그 과보가 나타난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업인과보의 삼세윤회설(三世輪廻說)이 성립된다.

삼세윤회설은 인간의 시야를 현세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한한 시공에 펼쳐게 한다. 이를 단순한 속명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업설의 목적은 현세의 괴로움의 원인을 속세의 인연으로 돌리고 제법(法)하는 입장이 아니다.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이를 극복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만을 확실한 것으로 본다(대십이처설). 삼세업보설은 이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속세나 내세 같은 것은 보통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경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삼세업보란 현실 세계

의 18천, 무색계(無色界)의 4천 등 3계 28천을 통틀어 가리킨다.

엘스타인이란 미국의 정신과 의사는 불교의 육도 윤회설을 '신경증적인 마음에 대한 불교적 모델'로 해석했다. 프로이트가 말한 열정을 동등적 본성인 충성도로, 편중적 상태와 공격적이며 불안한 상태를 지욕도로 보았고, 구강기적 갈망을 아귀도에 대비시켰다. 인본주의 상담에서 말하는 절정 경험은 천상도에 비견했고, 자아심리학과는 행동주의 그리고 인지치료는 경쟁적이고 유능한 자아를 개발하려 한다는 점에서 아수라의 영역으로 분류했으며, 나르시시즘은 인간도로 구분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각각의 개념과 조금 다르게 적용한 부분도 있지만, 인간의 심리과정을 육도 윤회에 대입한 해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숙세(宿世)

업(業)에 대한 법문을 듣다 보면 숙세(宿世)라는 표현을 접하게 된다. 숙세는 전세(前世) 과거세(過去世)의 뜻이다.

숙세에서의 생존상태를 숙명(宿命)이라 하고, 숙세에서의 선악의 습관이 남아 있는 것을 숙습(宿習),

숙세에 맺은 인연(宿因) 숙연(宿緣)이라 한다. 숙세에 맺은 이 인과 연은 선악에 모두 통하지만 관용상 좋은 인연, 즉 금생과 후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전생의 좋은 인과 연의 뜻으로 쓰여진다.

숙세에 지은 업은 숙업(宿業)이라 부른다. 이 업이 인연이 되어 금생 이후의 생존상태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므로 이 업의 인연을 업연(業緣) 업인(業因)이라 한다.

업인 업연 역시 숙인 숙연처럼 선악에 모두 통하지만 선한 쪽을 뜻하는 숙인 숙연과 달리 관용상 금생이후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전생의 나쁜 인

연의 뜻으로 쓰인다.

숙세의 좋은 업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숙선(宿善, 숙세의 선업)이라는 어구를 쓰기도 한다. 숙선이 없는 것(숙세에서 악업만 짓고 선업을 만들지 않은 것)은 무숙선(無宿善)이라 한다.

진종(眞宗)에서는 숙선의 유무를 중요시해서 무숙선인 자는 교법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없고 신앙도 갖기가 어렵다고 설해왔다. 그러나 부족한 숙선을 개발시키면 신앙도 얻을 수 있고 왕생할 수 있음을 강조해 수행을 이끌었다.

김지연 기자



그림 : 문병성

2007년 수덕사 「결계와 해계」 禪 수련회

덕송총림 수덕사는 禪맥이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禪의 종가입니다.

해마다 이어져왔던 여름 禪 수련 프로그램을 새로이 바꾸어 결계와 해계라는 주제로 스님들이 선방에서 정진하는 모습 그대로의, 선 실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教는 부처님의 말씀인 것처럼 禪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 마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

	일 정	기 간	프로그램명	수련비	참가인원	대 상	비 고
1차	7/28~7/29(토~일)	1박2일	산사체험	2만원	100명	어린이	선착순
2차	8/ 1~8/ 4(수~토)	3박4일	결계와 해계	8만원	50명	일 반	선착순
3차	8/ 8~8/ 11(수~토)	3박4일	결계와 해계	8만원	50명	일 반	선착순
4차	8/15~8/18(수~토)	3박4일	결계와 해계	8만원	50명	일 반	선착순
5차	8/25~8/26(토~일)	1박2일	선실천			교 사 (가족동참가능)	

- 준 비 물 : 세면도구, 속옷과 여벌의 옷, 편한신발 (※1차 어린이수련회 참가시 수영복 지참)
- 신청서에 희망 날짜와 차수를 꼭 기입해주세요.
- 납부내역 : 계좌번호 310060-01-005443 (은행명:우체국 / 예금주:수덕사)

자세한 사항은 수덕사 중무소의 담당자를 찾아 주세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 Tel 041)337-6565

동방의 빛이 계룡 800년 대운으로 후천이 시작 유불선 경신 도통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운수 대통 및 정해년 백중입재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식이 있고, 운명(命)과 수명(壽)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습니다.

- 경신(庚申)으로 심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정신세계를 창조하여 막힌 운명을 찾아 도통하여 미래를 창조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수행정진으로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살아가는 장수 비법과 건강의 주인공 되소서.

진인도통근자제위 귀하를 응맹정진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상통천문 신종통 허탈지리의 비전인 천문유초에 감추어진 오경명성과 서성명성 진법이 유상에 배일을 벗기는 경신일발 자시와 오시에 진인도통근자들에게 원방각해인도법으로 즉시도통하고 즉시 성불하는 이번 법회에 귀하를 초대하오니 다시없는 기회에 동참하시어 도통근자 사명자 일류스승 되시기 바랍니다.

- 병마귀신 잡신 천신 만신 구랑신 모든신들을 하나나라 불사신 광명천으로 경신일 자시에 불러모아 경신일 정오시에 영산대제 법패로 회원상생시키는 천도대법회에 조상영가, 모태유산영가, 처가친정·외가영가, 9대선망, 5대조상의 병, 일체영가 백중 49제에 임재하시어 해원상생으로 소원성취 하소서.
- ▷ 영가 1위당 1금 1만원, 모태영가는 5천원 7x7=49제
- 경신도통이란?? 자신의 주인공을 찾는 참선인 것이고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운을 받아도 안되고 치료해도 안되는 관절과 소족, 중풍,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해 달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해하는 수행법인 것이다.

정해년 경신은 출세와 명에 경쟁에서 이기고 국가에 문관 무관 관록을 얻어 진급 및 정치, 경영하는 충수가 되려면 경신도통 특별기도로 건강 부귀 장수는 물론 모든 소원과 한가지 소원을 얻는 것이 경신기도인 것이다.

경신도통을 하여야만이 무불도통으로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전생빙의와 해리로 고통받고 중음신과 삼시구중으로 육신의병, 정신의 병, 잡신과 귀신에 병의제도법 특별 태일대사 직강

- ◆ 신장과 귀속들을 부러 말문과 글문과 도통근자들과 영통능력이자 되시고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태일대사 옥주영을 강의하여 신장귀속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룰 수 있는 특별비법 전수

육경신 기도 중 이번 신종통 법회에는 운전에 자신이 없거나 사대가 불편하고 관절로 고통하며 수족이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즉 시 해원상생시키어 건강 성취하는 신종통 기도인 것이다.

부처님 열반 7일전에 보현보살에게 부처님께서 비전으로 이어진 부자되고 견성하여 불법을 지키는 비밀의 주문송의 비밀장을 그대는 아시는가.

신종통 법회에 해명을 득도하는 비법인 진법을 도통근자들에게 참된여래의 종자와 주인공인 나를 감추고 있는 으뜸가는 관문인 해명과 성품이 갈라져있는 참법을 즉시 도통전성하여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해명과 성품이 둘로 갈라져 해명은 성품 즉 마음자리를 볼 수 없이 육신만 자랑면서 성장하자마자 높고 병들어 계속신하나 관리못하는 모든수행자들에게 특별 경신수행으로 신선이나 도인이되어 만천하를 제도하며 살아가는 천하제일의 유래없는 경신도통 성령도통 자신도통, 말문도통으로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만법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경신도통대법회

- ◆ 분종단 불시금 부적으로 소정했던 탄해대선사 큰스님친필 평통, 일문서경보 큰스님 반아심경 평통 친필과 강석주 대선사 큰스님 현판 및 오유지족 친필, 수덕사 방장 원담 큰스님 반아심경 친필 평통.
- ◆ 제2도장 태양의 집-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명당 수행지 계룡명당, 불향산, 계동봉, 서출동유, 지장수 명지, 비산비야, 비승비승, 진인출연지에 동방의 찬란한 빛이 비추는 곳-정신심신, 육신의수양도당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H·P 010-2891-3117 명제 세계불교달마종 육경신 도통의 제2도장 태양의집

- 입제 : 양력 2007년 7월 24일(음, 6월 11일 화) (해시)
- 해제 : 양력 2007년 7월 25일(음, 6월 12일 수) (해시) 02-821-6622,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광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ړ고개 차차. (버스 6513, 6514, 5711, 461 이용)

운 조 달 마 경 신 도 통 회
세 계 불 교 달 마 종 통 산